

조선

비중확대(유지)

미국 SHIPS Act 제정에 따른 한국 조선업 영향

118대 의회 임기 말에 시작된 법안, 119대 의회로 이어질 것

- 미국 118대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 4명이 2024년 12월 19일에 ‘미국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번영과 안보를 위한 법안’을 발의
- 해당 법안 원문은 Shipbuilding and Harbor Infrastructure for Prosperity and Security for America Act of 2024 혹은 SHIPS for America Act of 2024
- 118대 의회 구성원들이 임기 말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이 특징. 임기 내에 가결할 수 없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다수인 119대 의회에서 해당 사안을 다시 발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4명 모두 119대 의회에서도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

해상 안보 우려가 현실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부흥책

- 위기 의식에서 시작된 법안. 현재 해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재화의 2%만 미국 선적 선박을 사용. 제2차 세계대전 말에 10,000척에 달했던 미국 선적 국제무역 상선(해군 지원선 포함)은 현재 80척으로 감소. 그동안 미국 내 조선소 수도 20개로 감소했지만, 그마저도 군함 건조 목적의 조선소가 대부분
- 중국은 반대 양상. 미국의 조선업과 해운업이 동시에 쇠락하는 동안,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전후 전세계 조선업, 해운업 점유율을 압도. 조선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군함 건조 능력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동아시아 해상 패권까지 장악
- 외국 선적 선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재 무역 구도에서 탈피하고, 쇠락한 조선업 인프라 및 인력, 신기술에 투자해 산업 번영과 안보를 향상할 예정

한국 조선업 수혜 1. 전략 상선단 참가하는 외국 건조 선박 신조 수주

- SHIPS Act로 인한 한국 조선업 수혜는 두 가지. 첫째, 전략 상선단(Strategic Commercial Fleet)에 참가할 상선 신조를 수주하거나 MRO 공사를 수주하는 것
- 미국은 250척 규모 전략 상선단을 꾸려 국제 무역선으로 활용할 예정. 전략 상선단에 참가하는 선박들은 선주들의 신청 및 정부 승인을 통해 결정
- 전략 상선단으로 참가 신청할 수 있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하거나 외국 건조 선박 중 일정 자격(미국 시민권 있는 선주, 선령 14년 이하)을 갖춘 선박만 가능
- 미국 선주들이 당장 내년부터 한국 및 일본 조선사와 2029년 납기 상선 건조 계약 체결할 것. 선주들이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전략 상선단에 참가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2029년이기 때문. 미국 조선소 전체에 현재 발주된 상선 수주잔고(29척)와 연간 건조 capa를 감안하면 외국 건조 선박이 반드시 필요

강경태

kyungtae.kang@koreainvestment.com

남채민

chaemin.nam@koreainvestment.com

한국 조선업 수혜 II. 미국 내 투자 인센티브 수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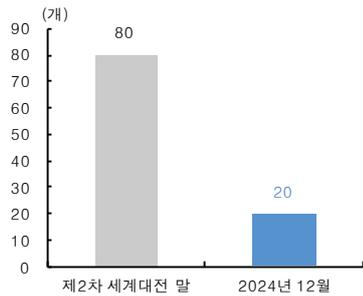
- 둘째, 투자 인센티브를 얻는 것. 외국 주체가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조선소, 기자재 업체, 강재 제작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적격 투자로 분류하고 금융이나 고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것
-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원하는 초당적인 기조를 감안할 필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공동 인수한 미국 필리 조선소의 Capex 규모를 비롯해, 현재 미국 내 조선소 매물을 물색하고 있는 HD한국조선해양의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
- 조선업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며, SHIPS Act 1차 수혜주로 미국 조선업 관련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는 한화오션을 제시

<표 1> SHIPS for America Act of 2024를 공동 발의한 의원 4명

소속	의회	성명	주	118대 의회	119대 의회
민주당	상원	Mark Kelly	애리조나	○	○
민주당	하원	John Garamendi	캘리포니아	○	○
공화당	상원	Todd Young	인디애나	○	○
공화당	하원	Trent Kelly	미시시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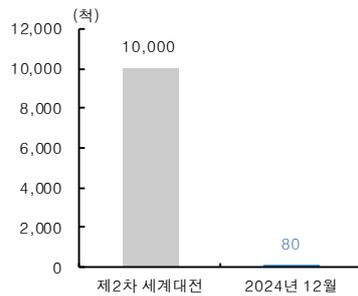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 미국의 조선소 수는 2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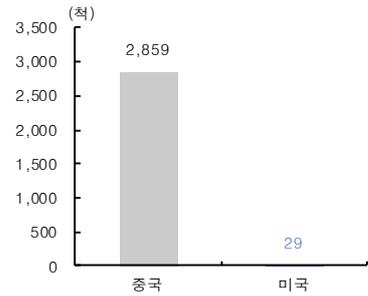
자료: SHIPS Act 2024, 한국투자증권

[그림 2] 국제무역 상선은 80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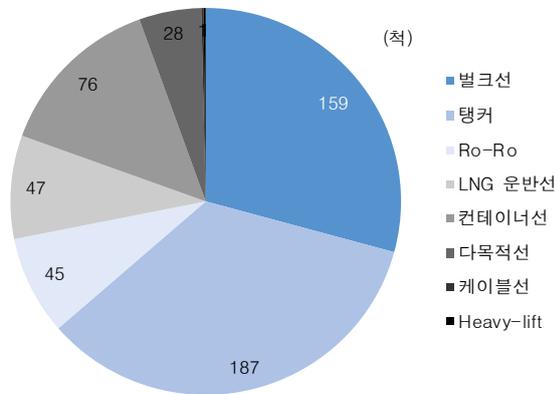
주: 미국 선적 기준으로 추정
자료: SHIPS Act 2024,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조선소 수주잔고는 29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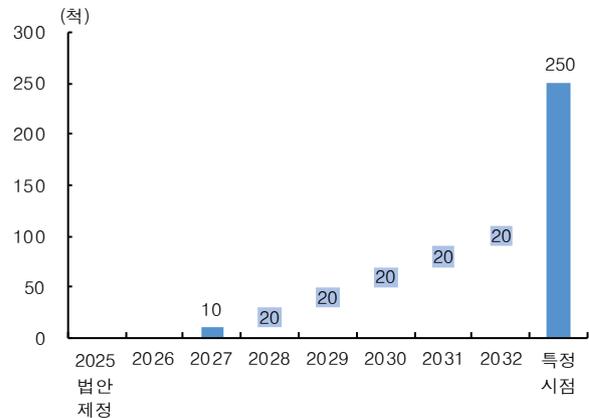
자료: Clarksons Research,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전략 상선단을 구성할 8개 선종 기준 현재 미국 선주사가 운영 중인 선대



주: 2024년 12월 20일 기준
자료: Clarksons Research,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이거나 외국에서 건조한 선박(미국 선주, 선령 14년 이하)으로 250척 규모 전략 상선단 구성할 것



주: 적절한 외국 건조 선박을 전략 상선단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2029년
자료: Clarksons Research,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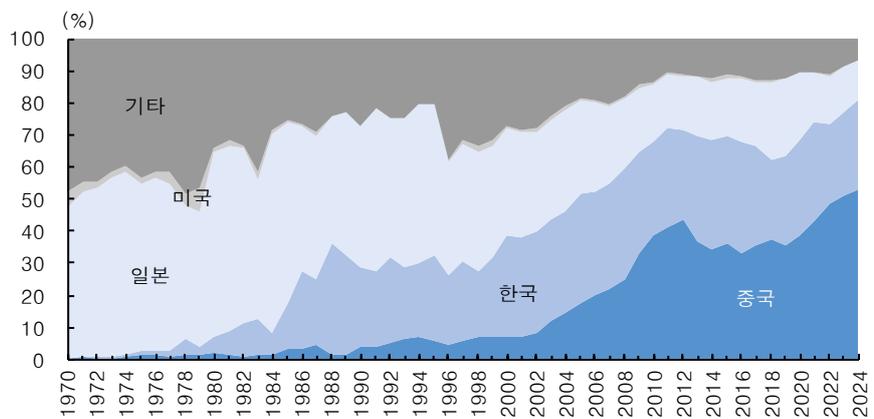
〈표 2〉 주요 지역의 상선 인도, 신규 계약, 수주잔고와 점유율

(단위: 척, %)

구분	지역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4
인도	중국	1	8	12	120	1,529	641	979
	한국	0	13	43	189	507	210	222
	일본	96	133	99	344	513	377	254
	미국	8	2	0	51	52	2	6
	기타	263	95	60	374	684	229	187
합계		368	251	214	1,078	3,285	1,459	1,648
계약	중국				172	1,540	728	1,518
	한국				342	495	200	248
	일본				382	352	227	164
	미국				46	36	10	2
	기타				437	533	219	227
합계				1,379	2,956	1,384	2,159	
수주잔고	중국				276	4,354	1,728	2,859
	한국				368	1,839	484	704
	일본				536	1,536	715	734
	미국				69	92	19	29
	기타				706	2,064	783	757
합계				1,955	9,885	3,729	5,083	
비중								
인도	중국	0.3	3.2	5.6	11.1	46.5	43.9	59.4
	한국	0.0	5.2	20.1	17.5	15.4	14.4	13.5
	일본	26.1	53.0	46.3	31.9	15.6	25.8	15.4
	미국	2.2	0.8	0.0	4.7	1.6	0.1	0.4
	기타	71.5	37.8	28.0	34.7	20.8	15.7	11.3
계약	중국				12.5	52.1	52.6	70.3
	한국				24.8	16.7	14.5	11.5
	일본				27.7	11.9	16.4	7.6
	미국				3.3	1.2	0.7	0.1
	기타				31.7	18.0	15.8	10.5
수주잔고	중국				14.1	44.0	46.3	56.2
	한국				18.8	18.6	13.0	13.9
	일본				27.4	15.5	19.2	14.4
	미국				3.5	0.9	0.5	0.6
	기타				36.1	20.9	21.0	14.9

주: 2024년은 12월 20일 누적 기준
 자료: Clarksons Research, 한국투자증권

〈그림 6〉 1970년 이후 주요 지역 상선 인도 점유율 추이: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변화



자료: Clarksons Research,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4년 12월 23일 현재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LP)입니다.

■ 기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

- 매 수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
- 중립 : 시장 지수 대비 -15~15%p의 주가 등락 예상
- 비중축소 : 시장 지수 대비 15%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
-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

■ 투자등급 비율 (2024. 9. 30 기준)

매수	중립	비중축소(매도)
84.4%	15.6%	0%

* 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

■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

- 비중확대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높게 가져갈 것을 권함
- 중립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비중축소 :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